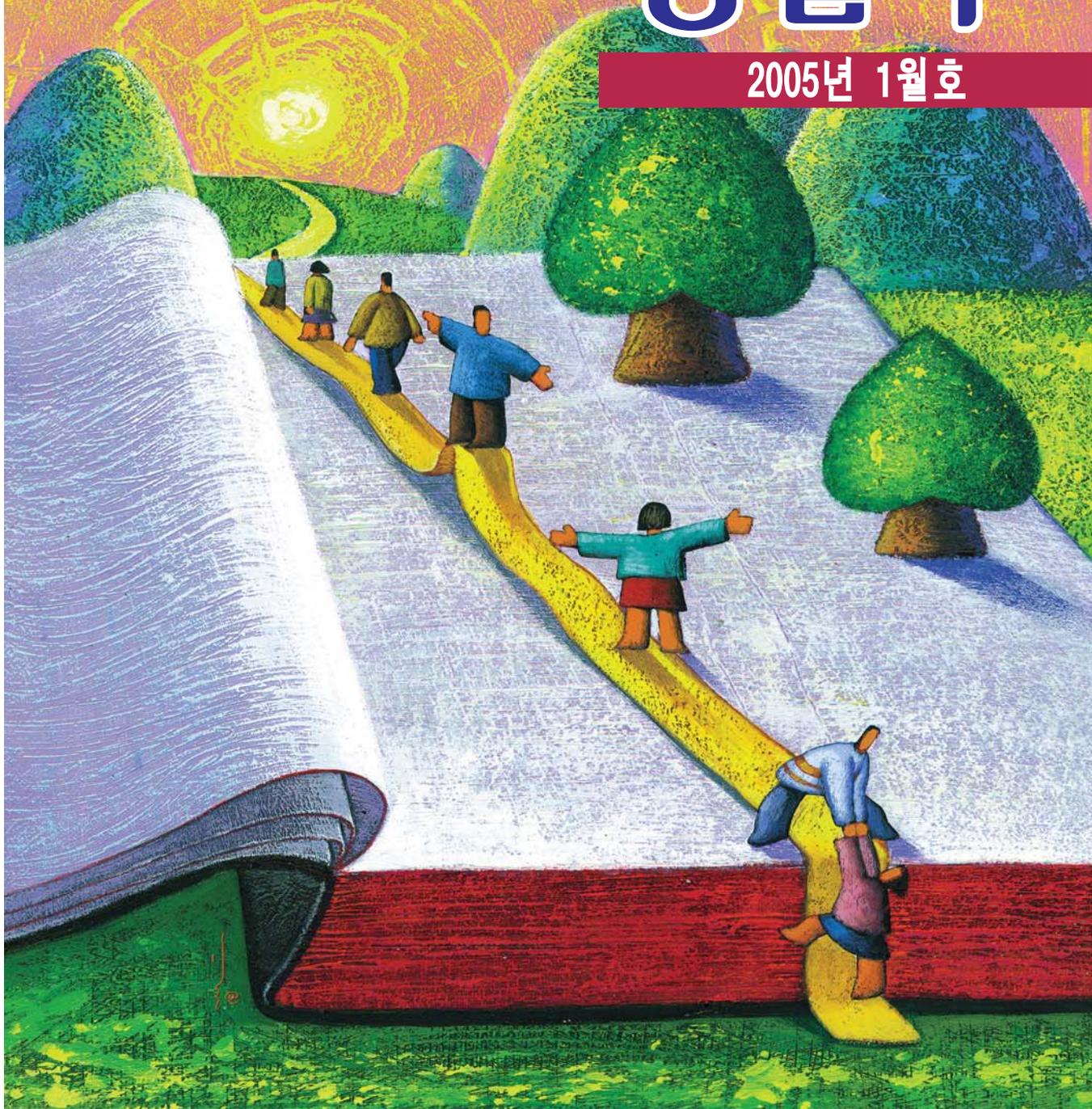


왕십리

2005년 1월호



올 한해도 말씀과 함께

내·마·음·의·풍·경



또다른 도전

산에 오르니 또다른 산이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렇게
또 다시 올라야 할 정상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운가?
아니면 힘들고 괴로운가?

글·사진 / 차주영

- 이달의 성구 -

목 차 / Contents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삿6:12



내 마음의 풍경 / 또 다른 도전	- 3
목회컬럼 / 잠재력	- 4
2005년 목회 계획 / 순종하는 교회	-5
기획연재 /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1-전덕기목사편)	-6
선교사 편지 / 수업을 기르는 이유	-9
성경의 자녀교육 / 공부 잘 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10
인물탐구 1 / 축복의 유혹에 빠진 왕 히스기야	-11
수필 / 엄마,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지?	-12
왕십리블로그 / 또 한해를 보내며	-13
신년시 1/ 별	-14
Q·T /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 순종, 선지자의 등장	- 16
왕십리 이모저모 / 송수영신 예배 · 성탄절외	-18
가정예배 /	-20
책소개 /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25
음반소개 · 퀴즈 / 주의 얼굴 보이소서	-26
요리 / 음식궁합	-27

잠재력



나의 친구들이 가끔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2004년 성탄절 아침 축하예배를 드릴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친구들의 방문이 있었다. 고교와 대학을 같이 다닌 친구들인데 그 중 한 친구가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왔었다. 예배 후 나오는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쉬어 나오기에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이했고 내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는 학교 때에도 탁월한 친구였는데 둘째 아들의 진로를 인해 고심을 하고 있었다. 함께 같이 나의 경험을 얘기하였는데 내가 홍콩에서 옥스포드로, 다시 홍콩으로 그리고 후에 에딘버러로 유학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몇차례 이동하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그 당시 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그 이동 과정에서 힘들었는가를 잘 몰랐다. 아버지가 옮기니까 당연히 옮기는 일이 된 것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힘든 사정을 잘 몰랐다. 진로를 의논하였지만 그러나 학교 진학의 문제를 놓고 늘 옛날 사고방식에 많이 매여서 생각했었다. 한국의 부모들이 의례 바라는 그런 방향 내지는 목사의 자녀로서의 뒤를 잇는 생각을 기대했었다. 그렇지만 실상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과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재조정을 하기 시작했다. 잠재력을 존중히 하는 선택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잠재력을 존중하는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다. 내가 원래 생각하던 방향과는 달랐으나 지

나고 나면서 내가 생각하던 방향과 사실은 다름이 없음을 발견하고 있음을 친구 가족에게 간증하여 주었는데 그 때 그 둘째 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눈빛에 비전이 번쩍이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은 놀랐다. 내가 잠재력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새로운 세대와 대화를 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각성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라는 보람 때문이었다.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다.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그 잠재력을 위해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 사실 잠재력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우리의 선입관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진정 자유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비전 안에서 잠재력을 풀어 내는 작업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새 해의 목회를 생각해 보았다. 교회와 성도들, 가족과 자녀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잠재력에 감사하면서 이제 자녀들의 잠재력을 부모가 믿게 하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위대한 투자를 하게 하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투자. 잠재력은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기도의 갈무리 속에서 투자에 대해 정말 놀라운 깊음을 해 올 것이다.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다가 가슴이 벅차 오른다. 오늘 또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이 위대한 잠재력을 향한 투자에 그 마음을 열게 될까. 진리와 성령으로 한 번 큰 도전을 해 볼까 한다. 인재의 개발과 양성을 향한 도전과 투자를!

순종하는 교회

주제 : 순종하는 교회

표어 : 성령충만, 말씀 충만으로!

성구 :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라”
(막8:34)

역사회에 문화적 공간과 교양교육을 개방함으로써 사랑의 나라를 확장하여 간다.

2) 사랑의 나라 선교센터

사랑의 나라 문화선교사역이 사이버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미래의 교회상을 바라보며 비전을 갖게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난지부흥운동

청년부(yeamers)가 난지 커뮤니티 부흥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게 하고,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난지사랑회(NGO)를 통하여 범세계적 문화운동으로 추진해 간다.

4) 복지

급증하는 노년 성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하여 백봉지역에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연구와 교회 미래의 초석이 될 어린이 센터 설립 연구를 시작한다.

5. 100주년 준비와 대부흥운동

교회설립 100년사 집필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회적인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실제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본교회에서 부터 기도과 말씀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하나님은 지난 96년 동안 우리 왕십리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교회를 이끌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미래에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힘차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말씀운동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동안 진행되어져 온 평신도성경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확대, 보편화시켜 말씀을 충만히 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성경 1독운동 전개, 교회설립 100주년 기념 필사성경 100권 전시회를 위하여 1교인 1권 성경쓰기, 전교인 성경통독 수련회 등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할 수 있게 한다.

2. 제자양육

훈련된 제자 양육을 위하여 핵심 일꾼들에게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실시한다. 연령별, 직분별로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왕십리교회가 지향하는 사랑의 나라 일꾼을 키운다. 특히 차세대 양육을 위하여 인재기금을 조성하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사랑의 나라 비전을 실현시켜갈 인재들을 발굴하여 육성한다.

3. 구역권찰회와 삼인의 교회

구역장, 부구역장, 권찰로 구성된 구역권찰회가 자발적으로 구역을 돌보며 협력하여 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만든다. 이를 위하여 수요 구역권찰회 교육을 강화하여 구역일꾼들이 먼저 은혜받고 헌신되게 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삼인의 교회가 구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구역 임원들이 제 1리더로 세워져 구역을 삼인의 교회 체제로 돌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구역의 부흥을 도모한다.

4. 사랑의 나라 문화선교사역

1) 시민대학

성도들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일으키고, 또한 지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3)

- 전덕기 목사편 -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1)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2)
민족에 울고 신앙에 살고(3)

3회에 걸쳐 소개하는 전덕기 목사에 대한 마지막 편입니다.

전덕기 목사는 이승만, 김구 등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당대 민족운동을 즐기차게 펼치며 그리스도를 섬겨 온 신앙인입니다.

1. 파송,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1907년 나는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아 상동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받았다. 집사목사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교회의 목회자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4년간 전도한 경력이 있고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일정한 과정의 공과를 이수하여 안수를 받게하는 제도였다. 그만큼 조국의 땅은 복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고 있었다. 비록 민족은 곤경에 처해 있었으나 복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은혜의 시대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 중에서도 이필주, 최성모, 김진호 목사는 모두 우리 교회에 입교하여 목사가 된 분들이다. 이분들은 교회의 삼총사로 불릴 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필주 목사와 최성모 목사는 33인의 민족 대표로 서명하였고, 김진호 목사는 당시 배제학당 학생들의 동원 책임을 맡아 맹활약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모두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했지

만 그 중에서도 이필주 목사는 잊을 수가 없다. 그는 1890년 뜻을 가지고 군에 입대, 장교가 되어 동학혁명 평정에 출동하여 큰 전공을 세웠다. 그 공로로 부교가 되었고 후에 시위대장에 올랐으나 1907년 일제의 조선군대 해산으로 17년 동안 봉직하던 군에서 쫓겨 가야 했다. 버려진 세상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발견한 보화와 같았다. 우리는 시대를 보며 울었지만 하나님을 보며 힘을 얻었다. 이필주 목사는 1913년 왕십리교회로 파송되었고 1918년에는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의 후임으로 파송받았다.

2.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1907년 2월 도산 안창호가 귀국한 후 2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권 회복을 위한 신민회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 단체들이 협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상동동교회 교인 이거나 상동청년학원과 관련을 맺고 있는 세칭 상동파를 중심으로 받기인 6인을 선정하였으며 나도 그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초기 신민회

는 총감독에 양기탁, 총서기에 이동녕, 신입회원 자격 심사에 안창호, 그리고 나는 재무 부분을 맡아 일을 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우리는 매일 저녁 국가를 위한 기도회로 남녀 교인 수 천 명이 구국 집회로 모였다.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울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민회가 발족된지 2년이 되기도 전에 일제의 마수가 뻗쳐왔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각기 분산하여 투쟁을 하도록 눈물의 결의를 내렸다. 1909년 봄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여 국내에 네명의 책임자가 남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황해도에는 김구, 평남에는 안태국, 평북에는 이승훈 그리고 서울은 내가 맡기로 하였다.

1907년 6월 네델란드의 헤이그 만국평화회담에 한국 대표로 우리 상동교회 청년 회장인 이준이 파견되었다. 일본의 감시 속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파견하는 고종 황제의 밀사인 이준의 파송을 위해 나는 경건한 환송예배를 드렸다. 나는 민족의 장래를 어깨에 짊어지고 떠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성도들도 울고 있었다. 모두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떠나는 이준을 향해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그 날 예배가 그의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은 나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는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7월에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다. 그의 죽음으로 17일 나머지 대표들이 헤이그를 떠났으며 고종황제는 폐위되었다. 그리고 24일에는 정부 부처의 장관을 일본인으로 한다는 정미 7조약을 조인하였고 결국 군대까지 해산되었다. 타국 땅에 교인을 묻은 슬픔과 더불어 나라를 잃은 슬픔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괴로웠다.

3.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만난 주님

슬프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시대는 울고

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언더우드와 함께 YMCA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0년에는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으며 YMCA의 학생부 간사로 취임하면서 학생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때부터 나는 이승만 박사와 매우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특별히 나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연합집회에 이 박사를 자주 강사로 초청하였다. 1911년 나는 학교 공부를 마치게 되었다. 12월 20일에 38명의 졸업생과 함께 성대하게 졸업식을 치루었다. 졸업식을 통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걸려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는 이 위대한 사명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졸업식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졸업식의 흥분이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데라우찌 총독 암살미수사건에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 데라우찌 총독 암살미수사건으로 전국의 신민회원 389명이 잡혀왔고 남산 기슭에 있는 통감부에서 살인적인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3월까지 이어진 고문으로 팔이 부러지거나, 눈알이 빠지고, 피를 토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죽은 사람도 두 사람이 생겼다. 나 역시 고문으로 인해 늑막이 터져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때문에 일본은 나를 불기소처분으로 내보냈다. 추운 겨울 늑막염과 더불어 폐렴에 걸리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할 일이 있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12년 인천 내리교회에 초청받아 설교를 하고 돌아오다 피를 토하고 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내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내게 이승만 박사가 찾아왔다. 그 역시 일본의 감시로 더 이상 조국에 머무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 그는 평신도 대표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나는 내 큰 아들

을 그에게 부탁했다. 아들만은 넓은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아들에게 위험한 폭탄이 되어 버렸다. 1913년 병세는 계속 악화가 되었고 옆구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흐르는 고름을 둘째 아들인 순경이가 닦아내었다. 나는 아들들에게 짐이 되어 버렸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차라리 이런 몸이라면 더 살아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이 목숨을 이리도 질리게 남겨 두셨단 말인가? 아직 그래도 숨이 남아있다면 내게 아직 할일이 있겠지…….” 원망이 밀려오려는 순간, 내게 예수님의 창자국이 보였다. 그의 옆구리를 찢은 창이 내게 다가 왔다. 원망조차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눈물을 주루룩 흘렸다. “예수여! 당신이 날 위해서 죽으셨건만, 난 부끄러운 인생만 살다 갑니다.”

1914년 3월 23일 전덕기 목사는 임종했다. ㉠

“전 목사님은 바로 이 강대상 이 자리에 서서
 왼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또 발을 구르면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철저하게 동포와 나라를 사랑하시오 라고 항상 말씀 하셨습니다”

- 김 구 -



수염을 기르는 이유

선교 기지에서는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을 쓰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마실 물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는 물통 2개를 얹어 놓은 듯한 간단한 형태의 반영구적인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에 물이 한 방울씩 느리게 떨어지기에, 간혹 방심하여 물을 채워 놓지 않으면 한참 동안 마실 물이 없어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선교 기지에는 거대한 물탱크 두 개가 있습니다. 굵은 여인네들이 아무데서나 막 길어오는 물을 돈을 주고 사서 이 탱크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물은 집을 짓는데 있어서 시멘트를 모래, 자갈과 섞을 때 사용하기 위한 물이기에 깨끗할 필요가 없어 흙과 더불어 온갖 이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탱크에 오랫동안 담겨있었기에 마시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지만 그릇을 닦을 때는 이 물을 사용합니다. 이 물도 돈으로 산 물이기에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릇에 물을 문히고 비누로 닦은 후 물로 살짝 행굽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그냥 햇볕을 쬐이도록 양지바른 곳에 펼쳐 놓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샘에서 길어 온 물을 사용합니다. 샘이 말라 이 물도 구하기가 힘들고 사람들뿐 만 아니라 온갖 짐승들도 이물을 마시기 위해 샘으로 내려오기에 물이 짐승의 오물 등의 각종 이물질들로 오염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침 일찌기 다른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오기 전에 산 골짜기 아래 샘으로 내려가 물을 물통에 담아 지고 올라와야 합니다. 끓이는 음식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이 물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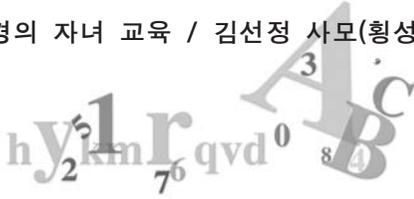
때때로 모든 물통을 차에 싣고 디바티 타운에 가서 물을 사 옵니다. 디바티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설치해 준 우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디바티까지의 길이 협해 15km를 차로 가는데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우물에서 차를 기다리고, 가지고 간 모든 물통들에 물을 채우는 시간을 더하면 반 나절을 물을 길어 오는데 소비하는 것입니다.

물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샤워는 물론이거니와 세수도 하지 않습니다. 세수를 안 하고 지내는 것이 한 이들은 불편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밤에 얼굴이나 발을 씻지 않고 자도 피곤해서 잠자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된 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 갈수록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빨래는 물을 많이 소비하기에 속옷을 비롯해서 옷은 되도록이면 갈아입지를 않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다 보니 자연히 면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삼주 이상을 지나다 보니 수염이 꽤나 자라있었습니다. 거울을 본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얼굴에 수염이 영성하게 남아있게 된 이유는 수염을 길러야 되겠다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소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수염이 있다 보니 비로소 남자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는 여자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수염을 기르지 않는 남자가 거의 없습니다. 수염이 없는 것은 남자로서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로 키우는 법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공연히 엄마의 어깨가 으쓱해진다.

반대로 아이의 성적이 뒤쳐질라치면 엄마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부모들은 누구나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유아교육서인 성경이 말하는 아이들 공부 잘 하는 방법!

유대인은 왜 우리와 다를까?

WANGSIMNI 10

우리 나라 인구는 남한만 4천만 명이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1천 3백만 명이 살고 있다. 우리 인구의 1/3, 65억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창조적 인재를 탄생시켰다. 나라 하나 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사실상 세계 역사를 지배해 온 것이다.

성서를 쓰고, 공산주의를 제창하고, 미대륙을 발견하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최초로 인간의 마음을 해부하고, 자본주의를 창도하고,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을 만들어 낸 이들이 다 유대인이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1/3이 유대인인 것만 봐도 그들의 저력을 알 수 있다.

왜 그들은 우리와 다른가? 무엇이 그들을 우리와 다르게 하는가?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맹 퇴치율과 교육열을 보이고 있다. 사실 세계적인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서 우리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까지 두각을 나타내던 그 수재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세계가 원하는 사람

자녀 교육을 말하기에 앞서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크게, 멀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앞선 사람을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애써야 할 것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그들의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

당장의 성적에 연연해 아이들을 닦달하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며 몰아부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번 학기말 고사의 성적이 좋아질지는 몰라도 아이들 마음속에 숨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꺾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래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며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적인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다. 진실로 오늘날의 세계는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을 원한다! 심지어 성적지상주의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조차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인 사람을 원한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람

“공부에 신경 쓰면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면 되지.”

오늘 우리 나라 엄마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성적이 떨어질 때 엄마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아이들을 닦달하는가. 엄마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통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죄의식에 가까운 스트레스는 아이들을 결코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들은, 특히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거의 대신해 준다.

학교에 갔다오면 숙제학원, 그 다음엔 피아노학원, 태권도장, 학습지, 과외 숙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일정을 엄마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혹시 각 학원에서 가르치는 기능은 늘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힘은 형편 없이 약화되고 만다. 창조력과 주도성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우리 술래잡기 하자.” “아냐, 말타기 하자.” 하며 스스로 놀이를 주도할 때 길러진다.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횡성에서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원주로 이사가겠다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물론 맹모 삼천지교에서 보여주듯 교육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지지받는 것’이다. 부모가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것만큼 좋은 환경이 없다.

최근 신문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10년 전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 엄마들이 짜놓은 일정표대로 움직이며 공부한 아이들의 한계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

반대로,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

야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주관(主觀)이 서 있는 주도적인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한다. 학습의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 자신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자.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 길이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한다. 안 되면 기도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를 주도해 가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공부를 평생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 이스라엘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쉰 노인도 공부한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머리가 좋아지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 되게 하는’ 공부다.

최근에 성적과 부모 교육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부모가 ‘공부, 공부’ 하며 학원으로 뺑뺑이 돌린 아이들보다 ‘인간 되게 하기’ 위해 애쓴 부모들의 아이들이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길을 넓은 대로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멀리, 크게 보자.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일찍부터 알게 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한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써 15년 수명을 연장시킨 왕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앗수르라는 대군 앞에서 그의 영빨은 힘껏 발휘되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과죽지세로 몰아닥치는 앗수르의 대군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들어가 히스기야는 기도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이라는 앗수르 대군을 치셨다.

도와 죽음 앞에서의 기도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그가 이 두 기도에 응답을 받고 부와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을 때는 어떠했는가?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기도 하셨다고 했다. 축복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축복의 유혹에 빠진 왕

히스기야

이상훈 목사

WANGSIMNI 12

이 사건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국제 사회에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에 따른 부와 영광은 실로 막대했다. 이때 포스트 앗수르의 야망을 품고 부강하는 신흥강국 바벨론도 히스기야를 방문한다. 두 나라간의 만남은 앗수르를 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신흥강국 바벨론이 자신을 주목한다는 사실에 흥분했는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그는 온 유다의 보물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공개한다.

이는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만든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유다의 멸망이 자신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러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넉넉할 때 조심하라.

히스기야는 역대 유다왕 중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서는 최우수 선수였다. 앗수르 앞에서의 기

②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한 훌륭한 왕이지만,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기도 하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위기가 닥쳐와야 간절해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기 극복의 도구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위기의 때이든지 평안의 때이든지 그 분께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 분 뜻을 구하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코 과거의 영적 경험이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영성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가올 성공과 축복을 피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역사의식을 가져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이사야의 멸망 예언에도 자기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역사 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로 그때 유대 역사 최악의 왕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고수하고, 과거의 성취에 도취되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영적인 돌봄과 배려를 잊고 있다면 어쩌면 왕십리의 다음 세대들도 어느새 므낫세를 닮아있을지 모를 일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엄마,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지?

작년 성탄절 이브,
 동네 아이들을 많이 많이 초대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수가 모였어요.
 다들 부모님과 외식하러 나간다는 게 이유였죠.
 어려서 아빠, 엄마를 잃은 중혼이
 성탄이브인데 아빠가 밤 근무 나가신 상민이 가족,
 오래 전 혼자되신 9층 할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

아이들과 함께 초코케익에 불을 켜고
 성탄 이브를 보냈어요.
 작은 입으로 방안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며 주님이 흡족해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도심의 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나 참 예쁘지요.
 그치만 아이들의 눈망울에 비친
 초코케익의 작은 촛불도 그에 못지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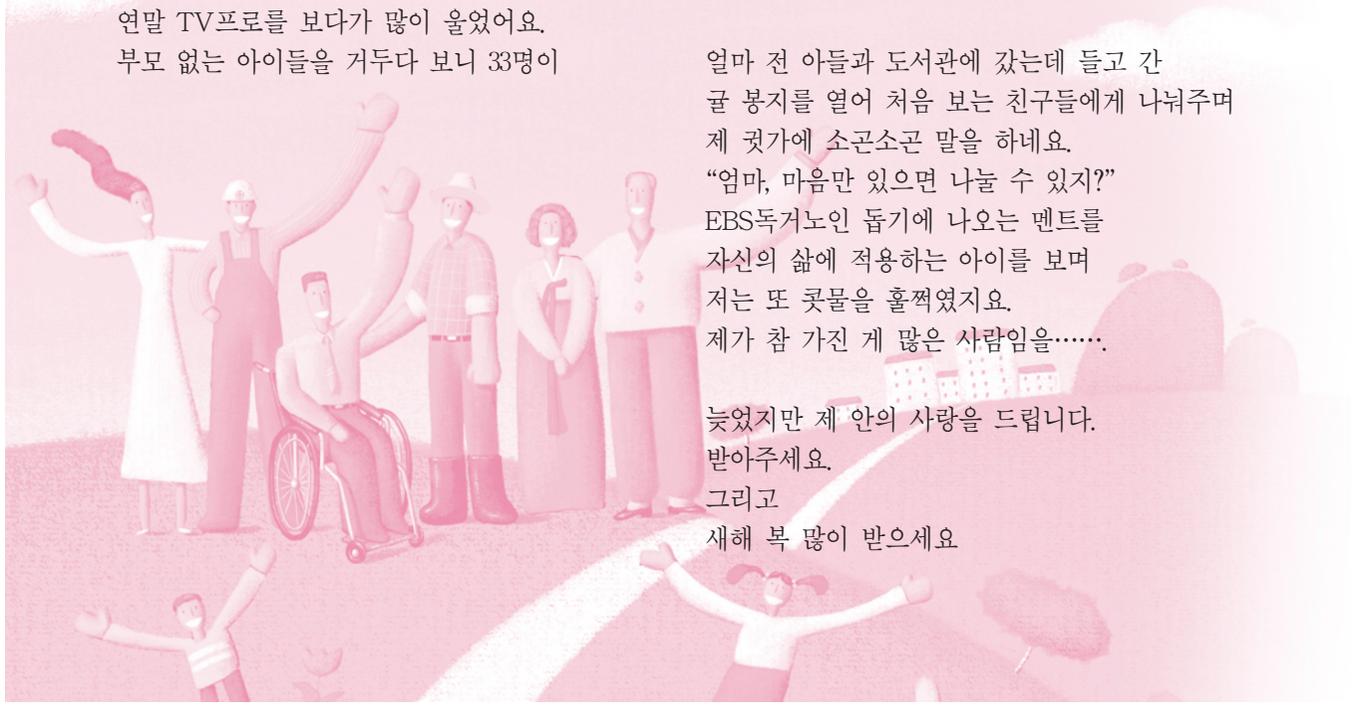
연말 TV프로를 보다가 많이 울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다 보니 33명이

한집에서 살게 된 어느 부부의 이야기…….
 잘려나간 손, 뭉툭한 팔로 피아노를 기막히게
 연주하는 장애인의 이야기,
 어느새 미치지 못할 곳까지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져 있는 제 모습이
 그 분들 모습 위에 겹쳐지고 있었어요.
 삶을 던져 헌신하는 그 분들의 터진
 손과 발 앞에서 제 손과 발은 어찌나 곱던지…….
 어떤 때 눈물도 진실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한 순간 흘리고 마는
 눈물은 진실일 수 없다는 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의 끝과 올 해의 시작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지만, 늘 있었던 어제와 오늘일 수 있겠지만,
 마음의 옷고름을 새롭게 매듭 묶어
 시작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도서관에 갔는데 들고 간
 굴 봉지를 열어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제 컷가에 소곤소곤 말을 하네요.
 “엄마, 마음만 있으면 나눌 수 있지?”
 EBS독거노인 돕기에 나오는 멘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또 콧물을 흘렸지요.
 제가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임을…….

늦었지만 제 안의 사랑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해를 보내며

우리는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맑고 순결한 아름다움을 꿈꾸면서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맑고 순결하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겸손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을 찾아 기뻐하기보다 불평을 참지 못 했으며 선의의 충고조차 선선히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들어주고 배려하는 자비심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하기보다 참을성 없는 몸짓과 언어로 상처를 주었으며 때로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요구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과 불행에 깊이 동참하는 노력을 게을리 했고, 방관자의 입장으로 지켜보는 마음엔 평화가 깃들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시 고마운 마음으로 새해의 언덕을 넘어려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나의 주변 정리는 아직도 미흡하고 어제하던 마무리도 남았는데 불쑥 들어서는 손님처럼 다시 찾아오는 새해를.....

우리는 그래도 망설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하자.

우리의 좁디좁은 마음엔 넓은 바다를 들여놓아 넓은 사랑이 출렁이게 하고 얇고 낮은 생각 속엔 깊은 샘물 들여 놓아 깊은 지혜가 샘솟게 하자 새해엔 우리 더욱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자.

--새해 첫날의 엽서에서, 철없는 어린아이기--

www.wpc.or.kr 자유게시판에서 발췌

별

박두진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여 왔더니라

백엽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엽 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되어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이고 서 있고
풍운에 각이어 날선 봉우리 훌훌훌 창천에 흰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싸아 - 한종일내 -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위에 흐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별드러이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 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 하여라.

[QT]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사무엘상 3:1-14)

김영희 집사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 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 여호와께서 세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13.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음성듣기라는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들린다고 하잖아요. 꿈으로, 말씀으로, 아님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들은 다 내려 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사무

엘을 하나님께서 거듭 부르시죠……. 얼마전 어떤 집사님을 만나 잠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분은 자신의 아들을 고등학교 3년 동안 등교를 시키면서 어느 등교 길에 심한 뇌성마비를 지닌 아이를 만났다가 지나오면서 기도를 했었답니다. “주님 저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일 이곳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확하게 그 곳에서 다시 만나 3년동안을 등교 시켰다고 하네요. 그 분의 아들은 뇌성마비 친구 가방을 챙겨 교실까지 안내해 주고요, 3년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먼길을 떠날 때는 아들 친구들이 그 학생을 등교하게끔 조치를 했었답니다. 그 뇌성마비 친구는 올해 약대를 입학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느끼면서 나의 가슴과 뇌가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정말 삶의 적용과 해석능력이 뛰어난 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빨리 깨닫고, 깨달으면 삶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때 그 분이 그 학생을 그냥 지나쳤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이 되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귀한 섬김의 기회를 잃게 되고 주님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셨겠죠. 지금 나에게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구요. 특별히 남을 섬기는 기회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지혜가 떠오를 때 많은 이에게 유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꼭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에게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다면 꼭 실천하시길……. 

[QT]

순종, 선지자의 등장

(사무엘상 3:15-21)

김애숙 집사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 엘리 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8.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 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오늘 아침 말하기와 듣기의 모범글을 묵상했습니다.(사무엘상 3장 15절~21절)

상대방에게 말을 전할 때 칭찬이 아닌 경고의 말을 전하는 어린 사무엘의 두려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8절)

정직하게 말하기는 점점 어려워 지고있는 것 같습니다. 처세술에 빠른 영리함이 오히려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 같습니다.

듣는 이가 듣기를 원할 때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말은 정말 유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묵묵히 들을 줄 아는 엘리의 듣기도 높이 평가하고 싶군요. 저도 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서 Anger과 Danger에 대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잔뜩 화가 나있다는 글이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와닿는 말이였습니다. ”화가 난 당신은 결코 옳은 편에서 있지 않다” 성난 군중을 향해 충고했던 간디의 말도 인용하고 있던군요.

Danger에서 D를 빼면 anger인데 화는 날개가 있어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침소봉대하며 육체와 정신을 악화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결국 파괴(위험)를 가져 온다는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통렬하게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겼고 너는 졌다며 항복을 받아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잔혹함을 본다는 글을 읽으면서 조화와 화합, 사람을 살리는 치유와 화해의 지도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알림]

사랑의 나라 왕십리 교회 여러 성도님!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여러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분은 왕십리교회 웹사이트 '왕십리 신문사'의 독자 투고란이나 '성도의 교제'의 QT 나눔방에 올려주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왕십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송구 영신 예배

지난 12월 31일 밤 11시부터 1월1일 1시 30분까지 본교회는 2004년 송구영신예배를 오치용 담임목사의 인도로 본당과 영아부, 유치부 예배실에 1000여명의 교우들이 모여 드렸다. 1부는 김남수 목사의 인도로 찬양과 기도로 2004년을 마무리하였으며, 2부는 서상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오치용 목사는 마가복음 8:34절을 본문으로 “십자

가 사랑”이란 제목의 신년 메세지를 통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용서와 사랑, 관용으로 2005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예배중에 성찬식이 거행되어 더욱 더 은혜로 왔으며, 유치부와 영아부 예배실에는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가족이 나와 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2005년도에도 주안에서 승리와 축복을 기원했다.



▶ 성탄절

지난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오치용 담임 목사는 마태복음 2:13-15절의 성탄 축하 메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케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역설했다. 이날 고등부를 제외한 각 주일학교에서도 축하 예배를 드렸으며, 특히 유년부에서는 예배 후에 전날 성탄 전야제 행사에서 발표하지 못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 발표회에서는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등의 악기 연주와 수화 찬양, 태권무, 워십찬양등 다채롭게 발표되었다. 한편 성탄 전야제는 1부 예배와 고등부 주최의 칸타타, 1부 주일학교 축하 행사로 진행되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주제

는 ‘오! 해피데이!’이며 이현주 집사의 지휘로 진행되었고(왕십리지 12월호 참조), 2부 축하예배는 고등부 지도 이승민 목사의 인도로 영아부의 ‘성탄 선물’ 등 3곡의 찬양, 유치부 어린 친구들의 ‘아기 예수’ 등 4곡 찬양, ‘고용한 밤 거룩한 밤’ 등의 플룻 연주, 유년부 친구들의 ‘예수님 생일 축하’ ‘우리 모두 축하해요’ 등의 워십, 초등부의 합창 ‘크리스 마스에는 축복을’ ‘아빠! 힘내세요’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중등부에서 ‘구두가게 마틴’이라는 성극을 선보였으며, 현재 국내의 외국인 선교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몽골어 예배팀에서 몽골 전통 춤을 선보이는 등 예년에 비해 다양한 축하행사로 이채롭게 진행되었다.



▶ 전교인 총동원 주일

지난 12월 19일은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드렸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 생명과 함께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총동원 주일은 본 교회에 출석하시는 의료인들이 교회 주차장에 간이 텐트를 설치하고 혈당과 혈압을 무료로 검진하였고,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등 각 전도회별로 다양한 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날 오치용 담임 목사는 마태복음 1:18-25절을 본문으로 ‘성령

에 의한 성탄’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 예수가 나심같이 오늘 새로운 새 생명들과 본교회 교우들이 거듭날것’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로 인해 본교회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7명이 새로 출석하였으나, 백봉산 교회는 17명이 새로 출석하여 매우 풍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예배인원이 얼마간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다.



▶ 제33회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고사 및 찬양 율동대회

지난 12월 4일(토) 광현교회(김창근목사 시무, 광진동 소재)에서 제33회 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성경고사 및 찬양율동대회가 200여명의 수도노회 소속 성도님들이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1부 성경고사에 이어 찬양 및 율동순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본 교회는 성경고사 전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타교회보다 월등한 기량을 과시하였다. 각 부분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경고사부문

특등 : 유년부/임성민, 차유빈, 안혜은
초등부/장은택 고등부/최대은
1등 : 유년부/박예은, 임성윤, 김주연

중등부/최성은, 장미선
2등 : 유년부/서지호, 남요셉
초등부/장예랑, 노성훈, 김하은
우수상 : 유년부/김효은, 배성운, 서지석

찬양대회 독창부문

금상 : 초등부/배성재
동상 : 유년부/정윤아
유치부/최정문
장려상 : 유치부/이지은

율동대회 개인부문

금상 : 초등부/정승아

율동대회 단체부문

대상 : 초등부/김하은, 임소담, 장예랑, 김희진



▶ 왕사고 송년 모임

지난 12월 31일 영아부 예배실에서 왕사고(왕십리 사랑 고리)의 송년모임이 개최되었다. 1부 찬양과 예배, 2부 친교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그동안 왕사고의 태동을 위해 애쓰신 장상기 목사가 장년 3부 지도로 옮김과 미국 유학길에 오른 안형열, 조은아 집사에 대한 환송이 있었고, 2005년 새롭게 왕사고 지도목사로 수고할 이상훈 목사와 차장 집사로 수고할 김흥선 집사에 대한 환

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의 선물 교환은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도서를 교환하였으며, 말씀 뽑기시간에는 무작위로 말씀을 선택하여 2005년 한 해 기도제목으로 삼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004년 한 해 다니엘, 드보라 전도회 소속의 30대 청장년 성도들이 말씀과 나눔을 목표로 가정사역위원회 소속의 아제반(아버지 제자반), 어제반(어머니 제자반)으로 활동하다가 10월부터는 왕사고란 모임으로 통합되었고, 2005년부터는 제2교육위원회 소속의 장년 1부로 정식 발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스도인의 눈물

성경 / 에스겔 9:1-8 · 찬송 / 539장, 542장

1.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실록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니라 2.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좇아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실록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저단 곁에 서더라 3. 그중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 나의 들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좇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사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높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7.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8.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 자라 엎드리어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옵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보통의 사람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기뻐하고, 물질적 손해나 지위를 잃으면 낙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내용에 따라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마5:4)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무엇때문에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WANGSIMNI 20

1.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참 기쁨과 위로는 애통한 후에 얻어집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모든 죄를 통회하며 눈물을 흘린 다음에 오는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살지 못했음에 대한 애통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가 무정과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나와 내 가정만 안정되고 편안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내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선교단체만 관심을 갖지, 이웃과 타 교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12:15)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3. 역사의 불의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역사의 모든 비극은 죄가 원인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원인이 정치, 경제,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죄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14:34)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의 눈물과 고통의 마음으로 역사의 불의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4. 회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누구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역사의 가증한 일을 보고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셨던 심정으로, 모세가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사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조국의 현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성경 / 갈라디아서 6:6-10 · 찬송 / 487장, 488장

가정예배
둘째 주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모든 것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요, 또 심었지만 거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거둘 것이 없다고 실망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난관에 부딪치거나 아니면 그 일이 반복되는 동안 실증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의욕도 잃고 피곤에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경의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시작의 동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는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결과가 없거나 남과 비교하여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우리의 동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7절)

2. 수확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은 것이 거두기까지는 시간을 요합니다. 당장에 결과를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보다 예수 안에서 심어놓은 기도, 전도, 봉사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수확의 법칙을 믿으십시오(9절)

3.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좋은 동기로 시작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바치는 큰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고전10:31)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성경 / 디모데후서 3:15-17 · 찬송 / 453장, 455장

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바다를 향해하는 배가 나침반 없이 항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배가 항해할 때 반드시 나침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생활에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나침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나침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인생의 나침반입니까?

1. 성경은 구원을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과학 책도 아니며 또한 역사의 전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사람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죄의 삯은 반드시 사망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죄로 인한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성경은 삶의 지혜가 있는 나침반입니다.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앞이 캄캄할 때 는 빛으로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는 등불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3.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나침반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이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갔으며, 요셉은 집을 떠나 유혹 받기 쉬운 청년의 때에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입니다”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했으며,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고 어 릴 때부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 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은 들 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나침반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확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삶

성경 / 역대하 20:20-23 · 찬송 / 433 장, 434 장



20. 이에 백성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륙하였더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점점 감사라는 마음과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가르켜 무감동, 무감각의 시대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이며 아울러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승리와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감사하게 했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은 여호사밧 왕이 불리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항상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2.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승리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본문의 상황도 여호사밧 왕이 적의 침공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조건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건강하지 못함에도 감사,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뿐 아니라 잃은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이 있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찬송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새 노래로 감사하라” 즉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에 순간에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와 축복을 받은 여호사밧 왕의 승리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감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너무 멀게 느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임재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2.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므로 세 가지 사역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고 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단순하게 내 소원을 만족시키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며 사역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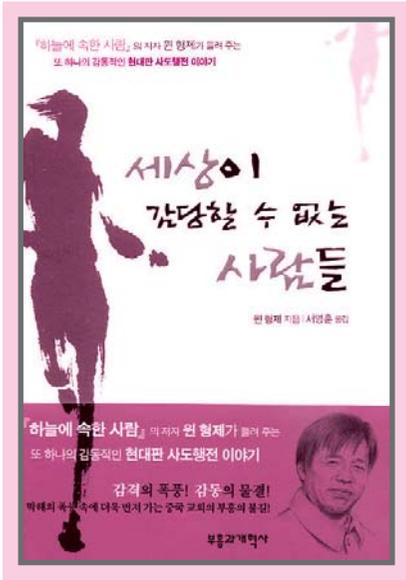
3.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면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느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까?

본문은 우선 일상적인 생존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적 평화를 위해서 용서가 삶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존과 이웃과의 관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어 가는 늦가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원형제 / 부흥과개혁사
/ 12,000원

박해의 폭풍 속에서 더욱 번져가는 중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

충격적이고 경이적인 중국판 사도행전!
하나님없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국은 1949년 공산화되며 많은 것들이 변하였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며 고도성장 중에 있다.

중국 내 기독교의 역사 또한 그렇다.

공산화가 되던 당시 6,000여 명의 선교사가 모두 추방
당하고, 모든 교회지도자들의 수감, 70여만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진 핍박과 박해.

그러나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는 1억 명에 가까운 성
장을 이루었다. 지금 중국의 교회에서는 현대판 사도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역사의 일부를 보여준다.

WANGSIMNI 25

..... << 한줄소개 >>



아침마다 새로우니
[유진 피터슨 / 복있는 사람 / 9,800원]
유진 피터슨과 함께 하는 매일 말씀
목상집.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김동호 / 규장 / 8,500원]
김동호 목사의 내 자녀 하나님께의 사
람으로 키우는 법, '맥아더 장군의 자
녀를 위한 기도'.



여성 그대의 사명은
[폴 트루니에 / IVP / 9,000원]
저자가 고령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는 지혜롭고 자
상한 할아버지의 예지와 통찰을 대하게 된다.



Music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4

주의 얼굴 보이소서



예수전도단 / 12,000원(CD)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찬양은 1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2집 '성령의 바람', 3집 '열방을 자 유케하라' 을 거쳐 이번의 4집까지 어느 하나도 뒤지지 않는 예배찬양이다.

이전의 음반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예배음반이다.

오랜기간 사랑을 받아온 음악과 최신의 음악, 번역되어진 곡과 새롭게 창장되어진 곡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좋은 예배가 되는 음반이다.

<< 한줄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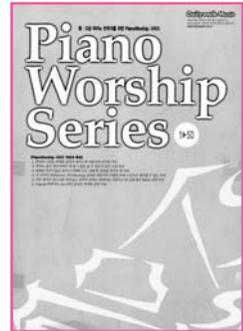
Again 1907 부흥이여 다시오라 (10,000 CD)

이 땅의 통일, 1907년과 같은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기도하며 '이 천' 워십리더에 의해 제작된 음반.



CROSSROADS RAINBOW (10,000 CD)

복음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다양하고 대중적인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가사 또한 함축적인 복음의 의미를 내포.



경배와 찬양 Piano Worship Series SET (37,000 악보)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피아노에 어울리게 편곡한 악보.

논 리 야 놀 자

원 나누기

네 개의 직선을 그어 원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대한 몇 개의 조각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전월호 정답 】

0.99999....를 3으로 나누면 0.33333....이 된다. 1/3을 계산해 보면 0.33333....과 같으므로 0.99999..../3=1/3 로 표현된다 다시 양변에 3을 곱하면 원래 값인 0.99999....=1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두번째가 참이다.



같이 먹으면 해로운

음식조합

같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해를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구성성과 성질로 인해 음식의 효과를 낮추거나 너무 과해서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이런 조합을 이번호에서 요리대신 소개해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특히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

- 쇠고기와 버터 / 쇠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고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버터에도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의 급증을 막을 수 없다.



- 라면과 콜라 / 라면과 콜라는 화학적으로 칼슘과 결합을 잘 하는 성질이 있어 칼슘부족을 일으키기 쉽다.

- 홍차와 꿀 / 홍차성분중의 떫은 맛 성분인 탄닌이 꿀의 철분과 결합해서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나탄산철로 변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된다.

- 감과 계·간·도토리묵 / 감은 탄닌성분으로 계나 간, 도토리묵과 함께먹으면 나쁘다. 계의 경우 소화불량과 식중독을, 간의 경우 탄닌산철이 되어 녹지않고 그대로 배설되거나 철분의 결합을 방해, 도토리의 경우 변비가 심해지고 빈혈증세가 나타나며 적혈구를 만드는 철분이 탄닌과 결합해서 소화흡수를 방해한다.

- 문어와 고사리 / 문어는 질겨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 그리고 고사리도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재료로 같이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

- 선지와 홍차 / 선지는 철분이 많아 빈혈증 환자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그러나 홍차와 같이 마시게 되면 홍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 탄닌산철을 만들어 철분의 효과를 방해.

- 시금치와 근대 /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옥살산은 수산석회가 되어 결석을 만든다. 그리고 근대에는 수산이 많이 들어있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옥살산 덕분에 신석증이나 담석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 우유와 설탕 / 우유에는 설탕을 넣으면 단맛 때문에 마시는 쉽지만 비타민 B1의 손실이 커진다.

- 장어와 복숭아 /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이 장에 자극을 주어 지방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설사를 일으킨다.

- 조개류와 옥수수 / 조개류는 부패 되기 쉽고 산란기에 독성물질을 만들어서 소화가 어렵다. 그리고 옥수수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둘을 같이 먹으면 소화엔 큰 지장이 생긴다.

- 치즈와 콩 / 치즈의 칼슘과 콩의 인산이 인산칼슘으로 결합 몸밖으로 배출 되버린다.

- 토마토와 설탕 / 토마토의 비타민 B이 설탕의 대사에 쓰여 B의 손실 큼

- 약물과 녹차, 홍차 / 녹차나 홍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약물 고유성분을 변화시켜 약효를 떨어뜨리기 쉽다.

- 시금치와 두부 /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결합 불용성의 수산칼슘이 생성되어 인체의 칼슘섭취가 줄어 결석증을 유발한다.

- 카레와 와인 / 카레의 매운맛이 와인 속에 잠재되어있는 알코올성분을 깨워 입안이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

- 도라지와 돼지고기 / 도라지는 기침, 천식에 좋은 뿌리채소이고 돼지고기는 이 기능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다.



- 고구마와 쇠고기 / 고구마와 쇠고기는 소화시 필요한 위산 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소화흡수에 해를 준다.

- 치즈와 땅콩 / 치즈와 땅콩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성인병을 유발하기 쉽고 인산칼슘이 만들어져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어 버린다.

- 우유와 바지락 / 우유에 있는 섬유질이 바지락과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떨어진다. 대신 철분 흡수는 칼슘이 도와주니 조개류는 우유와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을 함께 올리는 것이 좋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기도회
 • 새벽 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 오전 11시
 •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 : 오전 9시
 유년부·초등부 2부 :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 오후 1시

몽골예배/중국어예배 : 오전 1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부 성경공부 :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www.wpc.or.kr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김재영 장로 지도 : 이승민 목사
 주관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장숙현 집사, 임현석, 홍지혜, 이수정
 사진 : 차주영 미술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객원기자 : 배승원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 교회 : 02-2299-1011 출판실 : 02-2295-0114 FAX : 02-2292-0309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85-4109